



젓과 文化

♡♡♡ 柳 達 永 ♡♡♡

아프리카의 흑인 여자들이 터질듯한 두젓통이를 들어내놓고 태연하게 모여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며 대면서 그들 특유의 빠른 울동으로 무용도 한다.

그런데 조금도 괴이해 보이지 않는다. 또 흑인 여자들의 나체그림을 볼 때에도 그 풍만한 점은 유방이 아주 아름답게만 보일 뿐이고 음난한 생각이 털끝만치도 들지 않는다. 그 까닭은 그들의 유방의 노출이 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는 3~4세의 어린여아들도 젓꼭지를 가려주고 있지마는 70대의 우리 또래가 젊었을 때에는 부인들이 태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젓통이를 들어내서 아기에게 젓꼭지를 빨리는 것을 어디서나 볼 수가 있었다. 노인들이 머느리를 불러서 아기에게 젓을 먹이라고 할 때에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앞에서도 마주 앉아서 태연하게 젓을 먹이는 것이 예사였다.

오늘엔 어린 아이들까지 젓꼭지를 가려수게 된 것은 젓통이가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밥그릇 같은 신성한 젓줄이 아니라 쾌락을 전제로 하는 생식기의 일부라는 관념이 앞서 있기 때문

이다.
이것은 분명히 서구의 풍습이 밀려 온 뒤부터 시작된다. 젓통이를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깊이 가리는 것이 앞선 문화인지, 흑인들이 부끄럼 없이 유방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은 야만적인 것인지 나로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 백인들의 풍습은 모두 문화적이고, 흑인들의 풍습은 무엇이나 야만적이라는 판단은 결코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만일 젓꼭지를 빠는 것이 음란한 행위로만 생각한다면 극단으로 말해서 아기가 엄마의 젓을 빨아먹는것도 죄악이라고 단정해야 옳을 것이다. 노자(老子)는 도법 자연(道法自然)이라고 했다. 자연스러운 것이 곧 진리라는 뜻이다.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진화된 동물은 젓먹이동물(哺乳類)들이다. 인간은 특히 가장 오랜 시절에 걸쳐 젓을 먹이는 동물로서 만물의 영장(靈長)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천지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사랑”이라고 대답하고자 한다. 인류의 삼대 성인이라고 일컫는

예수, 석가, 공자들의 위대한 점은 인류에게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데 있는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서 사랑을 제거한다면 모든 동물 가운데서 인간 이상으로 흉악한 동물은 없을 것이고, 또 그 흉악성을 마음대로 발휘한다면 자멸하기에 이를 것이다.

기독교의 성화(聖畵)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 앉히는 것은 성가족(聖家族)의 그림이다. 라파엘의 성가족의 그림은 인간이 자나 깨나 소망하는 평화의 분위기를 흡족하게 느끼게 한다. 티끌 하나 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한다. 그런데 타락한 여자는 혐오의 대표로 느껴지고, 늙은 마녀(魔女)가 동서양의 구별이 없이 극악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된다.

여성에게서 사랑이 시들었거나 사랑의 씨가 말라 붙었을 때에는, 아름다움의 극치인 여성도 불순과 죄악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이 어미의 자격으로 있을 때에는 신성한 인간으로 느껴지게 마련이다. 더 없이 더러운 탕여라도 그 여인이 어린아기의 얼굴을 젖무덤 사이에 묻고 젖을 먹이는 시간만은 자비로운 어미로서 신성함을 느끼게 된다.

새끼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는 젖먹이 동물들이 가장 발달한 고급동물이 된 까닭은, 그들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에 사랑이 싹터서 종족을 가꾸어 나가기 때문이다. 어미의 신성함은 곧 젖의 신성함을 뜻하는 것이며 신성한 사랑은 젖에 의해서만 성장한다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생각하면 인류의 문화는 곧 사랑의 문화이며, 그 사랑은 젖통이에서 싹솟아 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

미들이 자녀에게 젖꼭지를 빨리 지 않고 짐승들의 젖으로만 자기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모성애의 샘터이던 젖통이는 단순한 쾌락의 성적기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사랑의 샘터로 창조한 유방이 단순한 성적 기관으로 타락 되었을 때의 인간을 창조한 신은 가장 숭고한 본뜻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어미로서외 유방을 포기한 여인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창조신의 징계를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글자도 없었던 석기시대(石器時代)의 인간들이 여자의 생식기와 유사한 조개를 쪼개서 뼈에서 목에 걸기도하고 허리에 감기도 한 것은 어미로서의 생명의 번식을 신성시하고 또 더 없이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자연스러운 풍습이었던가.

세계의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에는 가족의 젖을 먹고 살아 가고 있다. 젖을 직접 먹기도 하고, 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해서 먹고 있다. 그런데, 젖을 많이 소비하는 국민일수록 그들의 나라가 왕성하게 성장하였던 것을 지나쳐 볼 수가 없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마당에서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가혹하게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이다. 튼튼한 체력, 그 체력 속에서 싹솟는 용기, 그것은 왕성한 활동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바라보면 목축 민족의 큰 태풍이 여러차례 동서양을 뒤집었었다. 그것은 왕성한 힘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힘속에 밝은슬기와 따뜻한 사랑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쓰러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젖은 힘의 원천인 동시에 사랑의 원천이어야 한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병환으로 젖줄이 끊어졌었다. 나는 마을 여인들의 젖을 동냥하여 먹으면서 실낱같은 생명을 유지하

면서 자라났다. 그러므로 아주 약한 체질로 고생을 많이 했다. 나에게 젖을 가장 많이 나누어 먹여준 부인이 S씨댁 부인이라고 전해 들었다. 내가 성인 되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었을 때에 나는 수소문하여 S씨부인을 찾아나섰으나 이미 그분은 고인이 된 때였다. 나는 그의 아들을 형으로 부르고 친형처럼 피셨고 한학자인 선친은 그에게 글을 가르쳐 시골에서 존경받는 선비로 길러냈다. 그 가난한 시절에 생명의 젖을 나누어 준 고마움을 잊을수가 없다.

내가 젖통이를 사랑의 샘터로 생각하고, 그 젖통이의 사랑이 인류의 문화를 싹틔워 육성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항상 되씹게된 까닭은 내기 젖에 주리면서 잘어나서 오늘을 살게 된 때문이

다.

풍부한 어미젖을 덮어두고 대용유로 사랑을 가꾸자는 것은 오늘의 일그러진 기계문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거듭하는 말이지만 어미의 젖통이가 신의 저주를 받는 날에는 인류의 문화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또 어미젖을 뎀 어린시절로부터 많은 젖과 유가공품을 먹는 일은 힘의 원천이 될것이 문화창조의 활력소가 될것이다. 어찌 되었건 젖먹이 동물로 만물의 영장이 된 인간은 한 평생을 젖을 먹고 살아가는 특전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슬기이기도 하다.

